

남북통일 점검 평화재단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남북 대화협력의 가능성 및 통일과정을 점검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 1마당에서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의 교훈'을 주제로 올리히 불림 할레대학 경제연구소장, 라르 한셀 콘라드야데나워체 단 예루살렘 연구소장이, 2마당에서는 '에덴과 베트남 통일과정의 교훈'을 주제로 아메드 키비시 사나대학 부총장과 웅원 칸 하노이대 인문사회대학장이 각각 발표한다. (02)851-0581 노덕현 기자

7대 종교 환경지침 책으로 출간

종교단체 환경정책실천협의회, '환경, 더불어살기 II'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 천도교·유교·민족종교 등 7대 종교의 환경실천을 담은 <환경, 더불어살기 II>가 출간됐다.

종교단체 환경정책실천협의회(회장 정연택)는 5월 3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환경, 더불어살기 II>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불교의 생태적 지혜와 환경'을 주제로 편찬된 불교 환경지침서에는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의 '생태적 인식과 환경실천'과 유정길 예교 부대표의 '불교의 생명살림과 생태적 삶의 실천' 등이 수록돼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책에서 "7대종교와 환경부가 각 종교의 사상을 기반으로 종교단체 환경지침서를 공동 발간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다. 물질중심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각박한 세태 속에서 정부와 종교계의 자연사랑을 통한 조

화로운 삶의 추구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정연택 환경정책실천협의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환경, 더불어살기 II>는 각 종교인의 구체적인 생활 속 환경실천 운동을 중심으로 각 종단 환경운동가의 글로 구성했다"면서 "이 책을 통해 각 종단 환경실천운동이 더욱 구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종교인들이 녹색한국을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



5월 31일 불교 등 7대 종교의 환경정책실천법을 정리해 출간된 <환경, 더불어살기 II>

회국장 묘장 스님과 이만희 환경부장관, 오영숙 천주교교회의 환경소위원회 위원, 정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봉은사 물밀협상 진행 중"

총무부장 영담 스님 밝혀... 신도회 '철회' 서명운동

봉축을 즈음해 소강상태에 있던 봉은사 사태가, 일각의 우려와 다르게 당분간 폭로와 비방, 무리한 직영전환 강행은 없을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사진)은 6월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봉은사 직영전환 시행 등 무리한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 "물밀 접촉이 진행 중인 만큼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과 봉은사 등 복수 관계자도 현재 봉은사 사태 해결을 위한 양 측의 물밀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 측 모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밝히기를 꺼려했지만, 중앙종회의 승인을 얻어 직영전환의 명분을 전 총무원과 '좌파주지'를 몰아내기 위한 외압에 의한 전환이라며 반발하는 봉은사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

이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봉축 전 봉은사 일요법회 등을 통해 "봉은사 직영전환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부처님오신날 이후 법회에서 종단의 처부를 낚날이 폭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총무원을 자극할 언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봉은사 신도들은 봉은사 직영전환 철회를 위한 1인 릴레이 108배 참회기도와 직영사찰 지정 철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중앙승가대 중앙도서관 기공식

2011년 2월 중 완공, 김포시민에게도 개방

중앙승가대학 중앙도서관이 기공돼 2011년 1학기 전 완공될 예정이다.

중앙승가대학(총장 태원)은 5월 31일 김포화사 도서관 신축 부지 현장에서 중앙도서관 기공식을 봉행했다.

중앙승가대의 기존 도서관은 본관에 부속된 시설로 공간적 제약이 많아 학인스님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새 도서관은 중비 및 후원금 44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00여㎡ 규모로 지어진다. 1층에는 시민을 위한 열람실, 자료실, 전기간행물실을, 2·3층에는 대장경 등 불교관련 자료실과 인문사회 자료실, 교수와 학인스님을 위한 열람실 등이 갖춰진다.

또, 2·3층에는 학인스님들이 인근 강의실에서 도서관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4층에는 육상과 이어지는 옥상정원을 갖춰 학인스님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5월 31일 기공한 중앙승가대 중앙도서관 조감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총장 태원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하는 중앙도서관은 훌륭한 학인 스님을 양성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김포 시민의 의식을 함양하는 자리이타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장 태원 스님은 식사에서 "도서관은 교수에게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고, 학인스님에게는 폭넓은 독서를 통해 바른 생각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경기대

인수 추진 중

동국대(이사장 정연)가 경기대를 인수를 추진 중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동국대의 경기대 인수가 상당부분 진행 중이다. 최근 경기대에 투자의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PT(설명회)까지 마쳤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수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비라며 밝히기를 꺼려했으나, 인수자금은 15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가 경기대를 인수하면 연 신입생 수가 6100여 명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한편, 경기대 인수에는 동국대와 신승기업인 CN그룹, 교수·대기업 대표·로펌 공동대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개인들이 인수의 향서를 제출해 놓고 열띤 인수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는 임시이사회 내 법인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6·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대는 지난해 인수의 향을 밝힌 을지재단, 인제대학 등과 협상했으나 여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여수 토막살인 사건 교계 안팎 충격

조계종 승려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여수 여중업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 스님인 것으로 드러나 교계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5월 29일 유혹주점 여성집대부 살해 피의자로 여수 모 사찰에 거주하던 B스님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B스님이 거주하던 모 사찰은 조계종 제19교구본사 구례 화엄사의 여수지역 말사이다. 하지만 B스님은 조계종 승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

다.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는 "B스님은 오래전 종단에서 재직당한 상태"라며 "여수 모사찰에는 주지스님과 의 반연으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종단을 초월해 승가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조계종에서는 승가 위위와 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스

님들의 재교육 등 심성 점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관계자는 "조계종단 재직승려가 아닌 출가자의 종단 소속 사찰 거주는 종법상 어긋나지만 조계종단 내 출가자 수가 부족해 행정지도 외에는 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B스님이 거주해 지역민의 구설수에 오른 여수 모사찰은 화엄사와 협의해 이미지 쇄신할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국제기록문화전시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6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 개최했다. 6월 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전 세계 47개 국가의 중요 기록물이 전시되고 있는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원본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박재원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존자 원적 14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봉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제정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시고 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의 창종주 일봉 서경보존자님의 원적 14주기를 추모하는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일봉존자님과 인연이 있는 문도 및 종도,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시어 일봉존자님의 사상을 기리면서 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53년 6월

다음

- ◆ 일 시 : 불기 2554(2010)년 6월 20일 (음 5. 9) 일요일 오전 10시
- ◆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호불사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65-2
- ◆ 연락 및 문의처 1. 총무원 : 전화 (02)998-8161~2 / 전송 (02)998-8384
- 2. 호불사 : 전화 (032)833-8175 / 전송 (032)833-8888
- 3. 각교구 총무원
- 홈페이지 http://ilbung.org

- ◆ 증 명 : 봉해, 무찰, 금봉
- ◆ 고 문 : 청송, 원각, 송은, 수암, 혜천, 명종, 법운, 무공, 도기
- ◆ 봉행위원장 : 화엄
- ◆ 집행위원장 : 경원
- ◆ 봉행부위원장 : 삼주
- ◆ 집행부위원장 : 서병열
- ◆ 지도위원 : 일명, 경담, 자명, 해광, 혜원
- ◆ 추진위원장 : 법해
- ◆ 추진부위원장 : 광명심
- ◆ 기획위원장 : 용암
- ◆ 지도위원 : 도안
- ◆ 집행위원 : 석성
- ◆ 경호위원장 : 정철
- ◆ 각교구 동원위원장 : 보해, 동청, 영우, 광은, 승원, 해동, 고봉, 석성, 경운, 지운, 혜성
- ◆ 분과위원장 : 총무분과 (용운), 의전분과 (지언), 재무분과 (보월), 섭외분과 (정지현), 봉사분과 (해동), 홍보분과 (김지현)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일봉존자 추모대제 봉행위원회